

# “더 위험해진 세계 맞선 트럼프 2기 키워드는 ‘억제와 거래’”

### WSJ 대외전략 전망...동유럽·중동에 ‘힘에 의한 평화’ 추진 중국엔 무역전쟁·군비증강...동맹은 ‘돈 빌려가는 친척’ 취급

두 번째 임기를 맞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적대국들을 향해서는 강한 억제력을 내세우고 동맹국들에게는 자국 기여의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투트랙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 전현직 참모들의 말을 토대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해 적에게는 공포를 심어주고 동맹에게서는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대국들에 충분한 두려움을 주지 못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이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 ‘힘에 의한 평화’를 가져오거나 최소한 확전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처럼 미국 바깥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고립주의’ 노선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선과 주변 중동국들로 전선이 넓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 등 세계 정세가 트럼프 당선인의 첫 집권기 때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것이 배경이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하노이 회담을 거론하며 “그때만 해도 한반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다루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이란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이란은 중국에 석유를 팔고 있다. 서로 다른 지역들이 이렇게 상호 연결된 것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개별적인

대북 정책이나 개별적인 대이란 정책을 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노선을 배가하고, 첫 임기 때의 무역 전쟁을 재개하는 동시에 태평양에서의 분쟁 가능성에 대

비해 군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과 중동의 분쟁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이를 방관하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외교적 접근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전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분쟁에 미국이 끼여들어 중재하고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전 세계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안팎에서는 현 전선 그대로 휴전하고 수십년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벌이는 군사작전에도 미국의 ‘무한한

지원’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WSJ은 내다봤다.

강조해 온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동맹국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압박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선 기간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유럽외교협회(ECFR)의 미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레미 셔피로는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을 파괴할 생각은 없지만,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며 “그는 동맹이 미국에 바가지를 씌운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찾아와 돈을 빌리는 친척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국제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유럽연합은 안보에 위협을 느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홍수 피해 스페인, 정부 책임론 들끓어...“13만명 거리로”

### 최대 피해지역인 발렌시아서 주지사 퇴진 촉구 대규모 시위

홍수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스페인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주(州)의 주도 발렌시아시(市)에서는 수만명의 주민이 카를로스 마손 발렌시아 주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현지 언론은 이날 시위에 약 13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29일 남동부를 휩쓴 기습폭우로 최소 220명이 숨지고 70여명이 실종됐다. 사망자 대부분(212명)은 발렌시아주에서 나왔다.

선진국으로는 드물게 자연재해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현지에선 정부 책임론이 들끓고 있다.

8시간 만에 거의 1년 치 비가 쏟아지는데 놀란 스페인 기상청이 ‘적색경보’를 발령했는데도 지역 주민에게 긴급 재난 안전문자가 발송된 건 12시간이 지나서였던 까닭이다.



자연재해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시민들이 정부 대응 미흡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재민 지원 등 후속 대처도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이에 지난 3일 최대 피해지역 중 하나인 발렌시아주 파이포르타를 찾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분노한 주민들로부터 욕설과 함께 진흙·오물 세례를 받았다.

발렌시아 시내를 메운 시위대는 “살

인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마손 주지사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주 정부는 제때 홍수를 경고하지 않았고, 제때 대응하지도 않았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물러가고 새 정부가 그들이 남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마손 주지사는 중앙

정부로부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경고받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네 차레나 거듭 전화를 건 끝에 간신히 마손 주지사와 연락이 닿았다고 설명했다.

발렌시아 외에도 마드리드와 알리칸테 등 여타 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 日 총리 지명선거 당일 야당 대표 불륜 폭로

### 국민민주당 간사장 “총리 선거 당론대로 다마키 당 대표에 투표”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가 소집되는 11일, 총리 지명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야당 대표의 불륜이 폭로됐다.

현지 주간지 ‘스마트 플래시’는 이날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다카마쓰시 관광 대사인 여성 탤런트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다마키 대표는 기사가 나온 후 오전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된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라며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가족뿐 아니라 기대해 준 많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마키 대표는 자신의 대표직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의견을 듣고 싶다”며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는 “용서해 준다면 의원으로 확실히 일로 갈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지난달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국민민주당은 기존 7석이던 중의원 의석을 28석으로 크게 늘리면서 총리 지명 선거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국민민주당은 총리 지명 선거에서 1차와 결선 투표에서 모두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하는 ‘무효표’ 전략으로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재선출을 용인하면서 사실상 김메이커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또 경제 대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성향인 국민민주당 주장을 반영해 정책마다 협력해 가는 ‘부분 연합’을 바탕으로 정권을 유지하기로 해 국민민주당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다.

신바 가스야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불륜이 폭로된 다마키 대표를 유지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이당의 대표는 다마키 씨이며 사적인 문제는 가족끼리 논의하고 정책 실현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